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1:1-5

들어가며

포로후 이스라엘은 고토(故土)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새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새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 여겼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신앙의 동기를 잃게 되었고, 여러 가지 종교적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특별히 제사가 와서 시늉만 내는 형식적인 제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지 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실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마음 상해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마음 상해 있다면 무엇 때문인 지 나누어 봅시다.

1.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문

1.1. (관찰) 말라기서에는 여섯 가지의 논쟁이 등장하는데, 2-5절은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 1:2a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

1.2 (관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1:2b 너희는 이르기를 () 하는도다

1.3. (나눔1) 학개 선지자를 통해 새성전이 건축되면 풍요의 축복을 받고 정치사회적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든 현실이 지속되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속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사랑인가요?’라며 반정거리듯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어떤 것’, ‘손에 잡히는 소유’나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빚어감’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시작은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의 시선이 서로 엇갈리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행해주지 않으셔서 화가 났던 적이 있었나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때 일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1.4. (나눔2) 이웃을 사랑함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인이나 혹은 가족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것이 올바른 사랑인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가 어려웠던 경우가 있습니까? 결국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2.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적 사랑

2.1. (관찰) 불신 가득한 이스라엘의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예로 답변하십니다. 아래 구절을 찾아봅시다.

- 1:2b 에서는 야곱의 ()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을 사랑하였고 ()는 미워 하였으며...
- 1:4c 그들은 쌓을지라도 ()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와 ()이라 할 것이며...

2.2. (관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묵도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 1:5 너희는 ()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 하리라

2.3. (나눔3)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이었던 에돔 민족은 나바테아인들에게 거주지인 페트라를 빼앗기고는 고토(故土)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장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눈을 들어 크게 보면 보이고, 시간이 지난 뒤 역사를 보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알게 된 사랑이 있나요? 나누어 봅시다.

㉞ 함께 기도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한 길 되시고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약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소서.